

조국을 위한 장한 삶에 박수

제 38회 光日보훈대상 시상식...5명 수상 영예

‘제38회 광일보훈대상’(光日報勲大賞) 시상식이 안중현 광주지방보훈청장, 강운태 광주시장, 유재철 광주일보 사장을 비롯 시민·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오후 3시30분 정부광주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조국을 위해 희생한 영령들의 유족과 전·공상 군경의 장한 삶을 되새기기 위한 이날 행사에서는 김생현(공상군경 6급·65)씨, 강정례(전상군경 부인·77)씨, 박순금(순직군경

부인·73)씨, 노창영(전물군경 아버지·69)씨, 이용주(무공수훈·84)씨 등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일보훈대상’은 호국·보훈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훈가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광주일보사가 제정했으며, 올해로 38번째를 맞았다.

3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된 김생현씨는 현재 광주 정광고 배움터지킴이로 활동하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있으며, 강정례씨는 전상군경의

유족으로 몸이 불편한 남편 뒷바라지에 상이율사 자활촌을 설립한 공을 인정받았다.

박순금씨는 순직군경의 부인으로 서 보훈가족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공헌했으며, 노창영씨는 전물군경의 아버지로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용주씨는 화랑무공훈장 수훈자로 6·25전쟁 당시 혁혁한 전공을 올렸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총추위는 자격심사만 후보 3명 압축후 직선

朝大 총장 선거 규정안 대폭 간소화

조선대학교가 총장 선출 규정안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간선제 방식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9일 7면)에 따라 규정안을 대폭 간소화한 선출 규정을 마련했다.

조선대는 13일 이사회를 열어 오는 9월 치러질 총장 선출 방안을 직·간선제 혼용과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역할 축소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세부 규정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입후보자 자격심사와 간선선거를 거쳐 본선 진출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한 뒤, 교직원·학생·동창회 등이 직접선거를 치르되 결선투표없이 상위 득표 1위·2위를 이사회에 추천해 총장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총추위는 애초 규정안에는 입후보자 자격심사와 함께 별도로 후보 평

가를 하거나 간접선거인단에 참여로 록 돼 있었다.

그러나 총추위의 권한이 너무 클 뿐더러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총추위는 간선제 참여없이 자격심사만을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총추위는 교수평의회 13명, 직원노조 6명, 총학생회 5명, 총동창회 4명, 법인이사 3명 등 모두 31명으로 구성된다.

간접선거인단은 교수평의회 70명, 직원노조 30명, 총학생회 10명, 총동창회 10명 등 총 120명이며 투표권자는 단위별로 선정방법을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간선단 투표권자 선정 방법이 전남대와 같이 무작위 추첨이 아닌 단위별 자체 결정이기 때문에, 객관성·공정성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진도 윤림산방 국가 '명승'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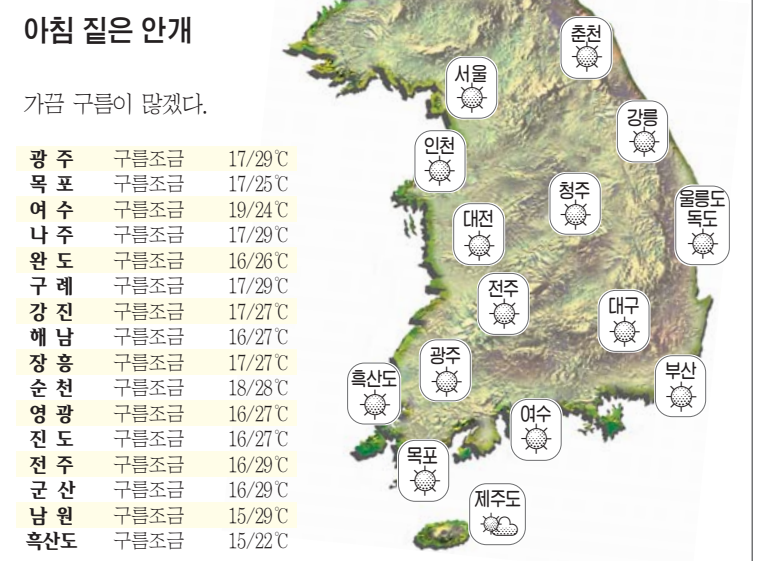


남도 전통회화의 산실인 진도 윤림산방(雲林山房·사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승격 지정 예고됐다고 13일 전남도가 밝혔다.

진도 윤림산방은 진도 쌍계사 상록수림(천연기념물 제107호)이 있는 첨찰산과 남도 전통회화의 산실로 유명한 윤림산방(전라남도 기념물 제51호) 등 자연유산과 역사문화유산이 어우러진 곳으로 경관이 뛰어난 명승지로 잘 알려져 있다.

30일 예고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중앙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승 지정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오늘 날씨



지역	종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0.5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	🍌	☹️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5m	☀️	🍌	☹️



방역비상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면서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13일 광주시 북구 보건소 기동방역반원들이 두암동 어린이 공원 정화조에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립공원의 야생화 <38> 함박꽃나무

‘산목련’이라 부르며 ‘천상의 여인’ 비유

함박꽃나무는 7m정도로 자라는 목련과의 낙엽 활엽 소교목이다. 흔히 산에서 피는 목련이라 하여 ‘산목련’ 격을 낮춰 ‘개목련’이라고도 부르지만, 한자어로는 ‘천녀화(天女花)’라고 해 ‘천상의 여인’에 비유할 정도로 아름답다.

꽃이 크고 화사해서 함박꽃을 같다고, 또는 함자박 같다고 해서 작아이나 모란을 가리켜 함박꽃이라고 부르는데, 함박꽃나무는 함박꽃을 닮은 꽃을 피우는 나무라서 함박꽃나무라 이름 붙여졌다. <박성배 내장식국립공원 백막사무소 과장>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서울 종로점 OPEN

[국제보청기]

총로5가역 4번출입구 1층(지하철 1호선)

문의전화 : 02)765-9940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이원인과 옆)

총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중앙시장 앞)

목포점 061-262-9200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062)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061)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454-7722

백두산악

광주의 자존심 백두산악에서 선택의 폭이 넓은 등산의류, 장비, 오토 캠핑까지 **전품목을 할인**해 드립니다!!

구매 고객님께 **사은품**을 증정해드립니다

할인 행사점

백두산악 증심사점 T.236-1187
광주아울렛점 T.267-2562
서방사거리 밀레 T.266-8848

BRANDS: NORDISK, MOUNTAIN EQUIPMENT, LEKI, OSPREY, TAYLOR, mello's w, Lowe alpine, coleman, snow peak, KOVEA, PRIMO, NATIONAL GEOGRAPHIC PHOTOGRAPHY, SUUNTO, PEIZL, DANA, CAMPLINE, MASLOW, ASOLO, COOP, LOWA, TIMBERLINE